

오천 명을 먹인 후 예수와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인 지역인 벳새다로 향한다. 이미 살펴본 대로 바다는 경계를 의미한다. 갈릴리 바다가 지역적으로는 유대인(갈릴리 바다 서편)과 이방인(갈릴리 바다 동편)을 가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고대근동의 신화에서 나타나듯 하느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비유된다.

처음 바다를 건너는 사건에 예수가 배 안에 타고 있었다면, 두 번째에는 제자들만 배타고 간다. 예수가 제자들을 ‘재촉해서’(force, compel) 먼저 보낸다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세상풍파를 경험하고 견디고 이기라는 뜻이다. 예수가 제자들이 바람과 풍파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다 짐짓 ‘지나가려’(pass by) 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는 일—이방 전도—에 실패하고 다시 원점인 갈릴리 바다 서편 게네사렛 땅으로 되돌아 온다. 그리고 마가복음 저자는 제자들의 실패 원인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한 결과라고 말한다(6:52). 이것이 무슨 뜻일까?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두 번째 군중을 먹이는 사건(8:1-10)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경계선 없애기와 관련된 부분만 생각해 보기로 한다.

두 번의 바다 건넌과 두 번의 축제 사이에 예수는 두 번에 걸쳐 배척을 당한다. 앞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면(6:1-5),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배척한다(7:1-5). 첫 번째 분쟁에서는 유대인 내에서의 계급분쟁, 곧 출신성분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데 반해, 두 번째는 예수가 장로들의 전통—정결법—을 따르지 않음을 예루살렘 권력이 지적하고 나선다.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에서 보면 보다 근본적이고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다룬다.

정결법의 신학적 조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와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문자적 의미는 ‘보통’(κοινός, common), ‘공동의,’ ‘일반적’이란 뜻—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지 묻는다. 씻지 않은 손은 제의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함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침수하다’(βαπτίζω, baptize, 7:4)는 제의적 씻음(ritual bath)인 침례(浸禮)를 말한다.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표현을 거꾸로 읽으면, 다른 제자들은 그런 제의를 지켰다는 말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당시의 제자들이 정결법에 따라 손을 씻고 먹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후기 초대 교회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갈 2:11-14 를 참조하라.)

떡(bread)은 바로 앞에서 오천 명을 먹인 일과도 연관된다. 또한 시장(ἀγορά, marketplace)이란 말 역시 앞에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예수를 만지고자 한 일을 상기시킨다(6:56; 7:4). 이렇게 보통 사람들, 일상의 떡, 사람들이 붐비는 공동의 시장이 예수의 일터고 생활권인데 반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통의 삶과 분리된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가복음 7 장에서 바리새인과의 논쟁은 이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다.

바리새인이 말하는 정함(purity)은 질서를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부정함과 오염(dirt)은 무질서를 상징한다(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가 세운 질서고, 누구의 눈에 그런가? 늘 가진 자, 지배자, 현 지배체제를 수호하려는 자의 눈이 잣대가 된다. 예수의 입장은 그런 차별 자체를 거부한다. 본래 더러운 것이란 없다(7:17-19). 다만 “더러운 영”이 있을 뿐이고, 이는 더러운 생각과 신학,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삶을 말한다(막 7:20-23).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표현에서 마음(καρδία, heart)은 감정이 아닌 생각의 자리다. 보다 심각한 가치관과 신학의 문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봉하는 예루살렘의 신학은 정결법에 기초한다. 후에 탈무드는 613 계명을 열거하고 제사장을 필두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248 명령과 365 금령에 대해 말했다(Tractate Makkot 23b). 예수와 제자들이 주창하는 신학 또한 토라에 기초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다. 이를 두 마디로 줄여 표현한 것이 경천애인(敬天愛人)이다(12:29-31).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잔과 주발과 낫그릇을 씻음과 같이 외형상의 정결을 강조했다면(7:4), 예수는 마음과 생각, 성령과 더러운 영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 내적인 정결을 말한다.

예루살렘 신학은 부정함이 외부로부터 들어온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길을 모색했다. 외부와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정결함을 유지했다. 반면 예수는 오히려 부정함의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경계했다. 정결함과 부정함은 인간의 내적 마음/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학(하기)의 출발점과 목적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루살렘 신학은 경계선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자신들만의 신성함(holiness)을 유지했다면, 예수는 그 경계선을 타파함으로써 또 다른 신성함인 온전함(wholeness)을 추구했다. 배타주의적 입장에 선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나실인 그 외 일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과 불구자 등으로 점차 성결함이 희석되어 사라진다고 생각했기에, 경계선이란 외부로부터의 오염됨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울타리였다. 그러나 예수는 포용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기존의 경계선이 통치와 압제의 수단으로 쓰였기에, 이를 타파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하느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길을 모색했다. 기존의 가치관을 뒤집어 보는 것이다. 분리를 통한 신성함은 부정함—여기서는 보통(common), 일상의 존재—을 죄악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할 온전한(complete, without blemish) 재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예수는 신성함이 오염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긍정적 신학관이다. 그래서 외부와의 단절, 분리를 통한 신성함(holiness)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내면으로부터의 깨끗한 영을 통해 포괄적 온전함(wholeness)을 강조했다(9:42-49; 12:33).

마음으로부터 신학 하기

막 7:21-23 에 나열한 악한 생각은 모두 열 두 가지인데, 복수형으로 표기된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은 그 악한 생각이 표면화된 각각의 행동을 총칭한다. 또한 단수형으로 표기된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훼방, 교만, 어리석음은 그 마음의 상태,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곧 신학적 입장이다. 이들 리스트는 당시 유대, 헬라 문학에도 종종 등장한다(롬 1:29-31; 고전 6:9-10; 고후 12:20; 갈 5:19-21; 골 3:5, 8; 딤후 1:9-10; 딤후 3:2-5; 딤후 3:3; 벧전 4:3)

처음과 마지막에 열거된 음란과 어리석음은 구약에서 하느님을 배반 혹은 대적하는 행위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느님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쫓는 것을 음란한 행위에 비유했으며, 어리석음이란 지혜와 지식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하느님을 의식적으로 거부, 대적하는 자세다. 시편에서 말한 어리석은 자는 하느님이 없다(시 14:1)고 말한 것처럼,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의 충돌이다.

안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신학 하기란 가치관을 새롭게 함을 말한다. 예수는 한 마디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선포)했는데(καθαρίζω, 7:19), 문둥병자가 예수께 구했던 말이다(1:40-42). 자신의 신학 하기로, 예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의 행적을 살펴보면 모두 지배체제가 질서로 세운 경계선을 넘나드는 행위들이다: 문둥병자(1:40-45), 안식일을 범함(1:29-31; 2:23-28;

3:1-6), 죽은 자에 손대기, 더러운 영(1:21-28; 5:1-20), 죄인을 용서(2:1-12), 그리고 죄인과 세리와 어울림. 부정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 또한 장로들의 전통인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법과 경계선을 타파함이나 결말은 자명하다. 예루살렘 권위는 예수를 죽이고자 피하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한다(3:6; 15:15).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의 담화는 여러모로 마가복음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먼저 예수와 논쟁에서 상대방이 이기는 (혹은 예수가 수긍하는) 경우는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담화가 유일한 장면이다. 예수는 바다와 더러운 영을 꾸짖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나무란다. 또한 시험하고 배척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한 마디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은 예수가 수긍한다.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이 짧은 이야기는 두 번의 떡 떼는 사건과도 맞물려 있다. ‘배불리 먹다’(χορτάζω)는 표현이 세 군데 나오는데, 오천 명을 먹이는 사건(6:42), 사천 명을 먹이는 사건(8:4, 8), 그리고 또 한 번 여기 비유에 쓰인다(7:27). “자녀의 떡”(7:27)과 “먹던 부스러기”(7:28)라는 표현 역시 앞의 떡 떼는 사건을 연상시킨다(6:31-44). 비유 속에서 먹는 것이 겉으로는 빵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은유적으로는 말씀과 신학을 뜻한다. 예수가 수긍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말(λόγος)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7:29).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2:5; 5:34; 10:52)는 말이고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잘 구별된다(4:40; 11:22). 그런데 여기서는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녀가 한 말 때문에 구원(귀신축출)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예수가 함께한 현장이 아닌 떨어진 장소에서. 여기서 여인의 말(λόγος)은 생각이라고 번역해도 된다. 내뱉은 말 뿐 아니라 그 말을 가능케 한 생각, 사상을 가리킨다. 곧 예수의 생각, 신학에 바탕을 둔 여인의 ‘말’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 ‘말’을 높이 산 것이다.

제자들 이야기

이방인 전도는 아마도 예수 시대 때 보다는 제자들 시대에 더 어울리는 주제고, 당면한 안건이었을 것이다(사도행전 15 장). 그 어려움이 풍량으로 묘사되고 있다. 마가 공동체는 유대인들 간의 소통, 화목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문화 다민족 공동체 성격을 띠었으리라 추정되고, 그 신학적 기반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어지는 전도 여행 보고다.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표현을 바꾸어 말하면, 다른 제자들은 그런 제의를 지켰다는 말도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논쟁은 곧바로 군중들에게 가르침으로 넘어가고, 다시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마가복음 공동체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7:18).

예수는 일어나(ἀνίστημι)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는데(7:24), ‘일어나다’는 동사는 단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가복음에 17번 쓰인 이 단어는 부활과 관련된 언어다. 예수가 삼일 후에 살아난다고 할 때 쓰인 표현이고(8:31, 9:31; 10:34),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거나(9:9-10) 마침내 안식 후 첫날 살아났다(16:9)고 말할 때도 같은 동사가 사용된다. 참고로 이와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마 15:21)로 쓰였다.

이방전도가 예수의 공생애 동안 일어났는가 혹은 사후의 일인가? 물론 예수도 제자들도 모두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의 짧은 공생애(6개월 남짓?) 동안 이방 선교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마가 공동체의 신학 하기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6:52; 8:17, 21), 이 이방여인은 예수의 말씀/신학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였을까? 본문은 단지 이 말을 했으니 가라고 적고 있는데, 헬라어 용법에서 이것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로 이해하는 것은 그 이유, 근거를 제시한다. 다른 하나는 “이 말을 위해서”라는 의미로, 목적, 목표를 말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말씀을 인하여”(διὰ τὸν λόγον, 4:17)라고 한 것이 첫 번째 이해라면, 2장 마지막에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위하여”는 두 번째 이해를 반영한 해석이다.

무엇이 여인의 어린 딸을 고쳤는가? 예수는 명령을 하지도 않았고(1:25; 2:11; 3:5; 5:8), 안수를 하지도 않으며(1:31, 41; 5:41), 그렇다고 병자가 예수를 만지지도(5:27) 않았다. 병자는 그 자리에 없었고 단지 처방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처방이란 여인의 말과 생각이다. 단지 여인의 말과 태도가 공손해서라기 보다는, 그 신학과 복음이 예수의 그것과 합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지만(마 15:28), 마가복음은 여인의 깨달음을 추켜세운다. 제자들이 필요로 했던 그 설명(7:17-18)을 여인은 듣지 않고도 안다. 바로 그런 신학 때문에, 혹은 그런 신학을 (세우기) 위해 예수는 여인의 청을 들어 줄 뿐 아니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뜻을 굽힌다.

그런데 과연 예수가 뜻을 굽힌 것일까? 마가 공동체의 눈으로 읽으면, 그 자신들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경계선 바깥에 서 있는 존재다. 그녀는 이방인이고, 여인이며, 또한 힘과 지위가 없는 가난한 자였다. 이중 삼중으로 배척당하는 존재라면, 예수가 이루고자 하는 모두가 함께 하는 세상을 누구보다 원했던 사람의 모습이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관 없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은 것으로 적고 있다(마 10:5-6; 15:24). 마가복음에서는 힘 없는 이방 여인이야말로 예수의 복음과 신학 속에 자리잡은 하느님 나라 백성이다.

생각해 보기

1. 내게 있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은?
2. 이것이 예수의 “경계선 없애기”와 관련이 있나? 이를 극복하는 길은?